세계불교포럼 축사

제 3차 세계불교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뜻깊은 행사가 되길 참석하신 대중과 함께 염원합니다.

현대 한국 불교의 선풍을 드높인 만공스님은 세계는 한 송이의 꽃이라는 『세계일화』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모든 만물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모두가 하나의 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불교포럼의 주제인 『和諧世界, 同願同行』(화해세계, 동원동행)는 세계일화의 정신과 부합하고, 현 세계에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지금 세계가 처한 난관과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 함께 직면한 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작금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속에 불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돌아 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사적인 정신 문화의 변화가 지금도 면면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질문화의 발달을 이끌었던 서양 중심의 사고는 이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동양의

사상, 특히 불교의 정신과 가르침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정신적 풍요와 안정이 중요하며, 삶의 근본을 통찰하는 불교의 가르침이야 말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인의 깨달음의 종교로 국한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종교로, 세계가 함께 탐구해야 할 진리의 가르침으로 널리 전파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종교로, 학문으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전세계인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불교는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하여 불교의 수승한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불교포럼에서 보다 심도깊은 과제의 도출과 대안이 논의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제3차 세계불교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여수에서 개최되는 WFB한국대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뵐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